

“작품 속 등장인물 대부분 나의 아바타”

광양 출신 박해강 ‘바깥은 우중’ 발간
단편 6편·중편 1편으로 구성
작품 대부분 5·18관련 이야기
“사회 영향력 키치는 베스트 북 쓸 것”



“사회 변혁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우리 현실의 모순을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인 작품”이라는 평은 여전히 오늘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것은 소설을 대하는 태도와 창작의 자세와도 연관된다.

이번 소설집은 등단 이후 여러 지면에 발표했던 작품들 중에서 단편 6편과 중편 1편을 추린 것이다. 작가는 처음 출간 제의가 왔을 때 시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망설였다.

작품들은 5·18관련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다. ‘미완의 탑’은 5·18항쟁 때 도청을 사수하다가 도망친 젊은이의 이야기를 그의 동생의 시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작중인물은 미완의 혁명을 이야기하면서, 혁명이 신비주의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파랑새”도 5·18과 관련된 작품이다. 광주에 공수부대 일원으로 왔던 어불장수와 학내 운동권이었던 여학생의 이야기다. 중편 소설 ‘생두부’ 또한 5·18 당시 함께 활동했던 젊은이들이 이후 어떻게 각자의 길을 가게 됐는지 들여다본 작품이다. 나름대로 자기 정당성이 있었을 거라는, 인물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견지했다.

박 작가는 “단편소설을 쓸 때마다 실상과 허상, 존재와 부재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며 “그것은 ‘암울’ 속에 갇혀 있던 시절에 출구를 찾아내려는 일종의 모색”이라고 부연했다.

그의 전업작가 초기 시절을 어느 정도 아는 터라 ‘암울’이라는 말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다. “소설을 쓴다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을 다 없앴다”는 낯두리 아닌 낯두리는 적어도 전업작가로 사는 동안 생계 때문에 다른 길을 기웃거리지 않았다는 의미로 들었다.



박 작가는 원래 대학(조선대)을 졸업하고 석탄공사에 취직해 4년여를 근무했다. 80년대 초반에 들어갔으니, 석탄이 난방연료의 주 시절이었던 당시로서는 선망의 직장이었을 터였다.

“처음 본사가 있던 삼척군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후 화순으로 발령이 날 줄 알았어요. 고향 부근에서 문학공부도 하고 대학원 진학도 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태백시 장성군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때 소설을 쓰자는 생각으로 마련 없이 사표를 냈습니다.”

박 작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화순으로 내려와 작업실을 마련했다. 그에 따르면 “광주 전남 작가는 최초 작업실”이었다. 당시 “폼을 잔다는 비아냥도 들었지만” 누가 뭐래도 소설을 쓰고자 하는 열망을 억누를 수는 없었다.

“전업작가로 산다는 것은 경제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죠.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전제가 담겨 있기도 하구요. 당구도 400정도 치고, 그림도 어느 정도 그리고, 탁구도 수준급이라는 말을 듣는데 글을 쓰다 보니 자연 멀어지더라고요.”

사실 소설은 사전적 의미로 ‘잔소리’, ‘잔말’이다. 그러나 그를 포함해 작가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소설은 우주처럼 광대하다”는 말이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앞으로도 그는 소설을 화두처럼 붙잡고 정진할 계획이다. 현재 상무지구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두고, 소설을 쓰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 공부하며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말 좋은 글을 쓰고 싶습니다. 일반인한테는 좋은 글이라 하면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를 의미하겠지요. 그러나 저에게 좋은 글이란 베스트 북을 뜻합니다. 베스트북은 시간을 초월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니까요.”

박 작가는 원래 대학(조선대)을 졸업하고 석탄공사에 취직해 4년여를 근무했다. 80년대 초반에 들어갔으니, 석탄이 난방연료의 주 시절이었던 당시로서는 선망의 직장이었을 터였다.



‘나는 마한의 멋쟁이!’ 체험 놀이터

내가 무덤의 주인이라면?

나주박물관, 마한 주제 어린이 체험놀이터 단장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희수)이 영산강 유역의 마한을 주제로 한 어린이 체험놀이터를 새롭게 단장했다. 새롭게 단장한 체험놀이터 콘텐트는 ‘고분 속 보물들’, ‘내가 무덤의 주인이라면?!’, ‘커다란 마한의 무덤’, ‘나는 마한의 멋쟁이!’ 등이다.

‘고분 속 보물들’은 고분 안에서 발견된 문화재들 가운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새 모양 토기와 상상의 동물 모양 토기 등을 블록으로 자유롭게 꾸며보는 공간이다.

2층에서는 마한 최고 지도자 무덤 속에서 발견된 문화재를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무덤 속 독

널에 넣고 싶은 것을 생각해보고 직접 꾸며 보는 공간이다. 무덤을 타고 내려오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나는, 마한의 멋쟁이!’에서는 신촌리 9호 무덤에서 발견된 금동관과 금동신발, 칼, 옥 목걸이를 살펴보고 당시 옷을 직접 착용할 수 있다.

아울러 박물관을 대표하는 10개 문화재를 캐릭터로도 만날 수 있다. 금동관, 독널, 새 모양 토기, 굴뚝, 원통모양 토기, 구멍단지 등의 캐릭터가 어린이 체험놀이터 곳곳에서 비치돼 있다.

한편 관람은 예약제(시간당 50명·누리집 신청)로 운영 중.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시립미술관, 윤진호 교수 등 초청 아카데미 강좌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정승보)이 제3기 미술관 아카데미 강좌를 시작한다.

올해는 ‘왜 미술관에 가느냐고 묻거든’을 주제로 모두 6차례 진행된다. 6~7월에는 온라인 강좌로, 8~11월(매월 둘째주 화요일 오후 3시)에는 오프라인 강좌로 진행한다.

첫 강의는 세계적인 기후학자 윤진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맡았다. ‘기후변화를 통해 본 인간 삶의 모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의에서 윤 교수는 ▲어떻게 50년 후, 100년 후 기후 전망을 하는지 ▲그림 속 기후변화의 단서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서울대를 거쳐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기상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윤교수는 유타주립대 교수를 역임했다. 강의는 9월부터 7월13일까지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문화계 대표 인사들을 초청해 다양한 강의를 들



윤진호 교수

는 올해 아카데미에서는 문화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가 마련돼 있다. 7월(인터넷 강의)에는 김이연 서울시립대교수의 ‘현대인의 삶과 도시의 정령’가 준비돼 있으며 이어 8월11일에는 함인선 광주시 총괄건축가의 ‘도시와 건축’ 강좌가 열린다. 이어 9월 초는 소철가의 ‘오월, 다시 찾아온 그 봄날의 정령’ (9월8일), 안철 클래식음악해설가의 ‘클래식 음악 속 그림 읽기’, 정문열 서강대 교수의 ‘기계의 인간의 소용, 새로운 예술 시작’ 등이 예정돼 있다. 무료 강좌. 문의 062-613-713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민인문학, 8일부터 인문학 카페 노블서 정기강좌

광주시민인문학이 80기 정기강좌를 8일부터 전남대 정문 앞 인문학 카페 노블서에서 연다.

7월 5일까지(오후 7시 30분) 열리는 이번 정기강좌는 시민대학, 글쓰기교실, 철학스터디, 영화인문학 등 다양한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월요일과 화요일(격주)에는 명혜영 교수가 각각 ‘근대 개인의 탄생과 리더십’, ‘인문적 글쓰기로 나를 만나다’를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수요일에는 철학스터디 시간으로 명혜영 교수가 ‘도감으로 이

해하는 철학용어’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목요일 독서동아리 시간에는 신우진 이사가 ‘목회회-십인십책’을 매개로 시민을 만난다.

박요일(격주) 특강에는 전남대 김상봉 교수와 마주희 교수가 ‘공동체 문화’에 대해 강의를 한다. 토요일(오후 2시)에는 영화 인문학 시간으로 영화 덕후 진정환 씨가 ‘영화로 읽는 삶, 여성, 가족, 개인’을 진행한다. 문의 010-4624-120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극단 ‘전우치 comeback with 바리’ 배우 공모

15일까지 접수...17일 오디션

광주시립극단이 ‘전우치 comeback with 바리’에 참여할 배우를 공개 모집한다. 신체 건강한 연기자, 무용수, 무술유단자 등을 모집하며 연습 및 공연 일정에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2~1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gjdrama@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오디션은 17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시립극단 연습실에서 열린다. 응시자는 자유연기, 기타 특기사항(음악적임, 노래 등)을 준비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19일에 발표하며 응시원서 및 자

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우치 comeback with 바리’는 전우치 시리즈 다섯 번째 작품 바리공주 설화와 매칭해 선보이는 공연이다.

오는 8월 13~22일 매주 목·금·토요일 광주 상암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리며 9월 2~6일 그라제 축제 기간 광주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에서 공연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 | | | |
|---|---|--|--|
| <h4>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h4>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p> | <h4>고 전 방</h4> <p>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 <h4>퀵 타로카드</h4> <p>지하철 금남로5가역 4번출구(신한은행 옆) 궁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 타로마스터 ☎ 010-3640-6429</p> | <h4>신신 예술의 집</h4> <p>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
| <h4>장 어 수 산</h4> <p>북구 서암대로 88(신안다리아) 무항생제 경어사용 포장배달·전국택배배송·선물포장해드립니다. 신용부위 ☎ 062)412-1961, 010-5828-1961</p> | <h4>미가한우명가</h4> <p>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 뒷편)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 ☎ 061)333-0505, 010-4390-3366</p> | <h4>무크 광주세점점</h4> <p>서구 상무대로 773, 세강아울렛2층 258호 화사한복 신상품 대량 입고 남·여 20~40%세일 (일부품목제외) ☎ 062)370-9258</p> | <h4>한성꽃화원</h4> <p>나주시 나주로71(송월동 LG화학 옆) 근조·축하화환, 동·서양관, 관엽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p> |
| <h4>남 문 냉 동</h4> <p>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 저온저장고제작수리, 영업용 냉장·냉동수리 에어컨 전문설치 ☎ 061)333-2779, 010-3610-2779</p> | <h4>우리 뷔 페</h4> <p>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p> | <h4>개성전통한방삼계탕</h4> <p>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p> | <h4>천상일월태주명</h4> <p>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뒤편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p> |
| <h4>대성각 중화반점</h4> <p>동구 무등로306-6(구시청뒤 도로변) 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 062)430-5342</p> | <h4>박 당 화 랑</h4> <p>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p> | | |